

IVYclub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복

19호

March, 2015

www.ivyclub.com

엑소인터뷰

아이비클럽 제작노트

아이비패션

스타인터뷰 정용화

하이포

우리 학교는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어!



XIUMIN



CHEN



D.O.



SUHO



LAY



KAI



CHANYEOL



TAO



SEHUN



BAEKHYUN

다리가 길어보이는
칼링핏!
아이비클럽

무엇이든 얼려봐!

다가오는 여름! 무더운 날씨에 시원하고 달콤한 간식이 생각날 때를 대비해 미리 배워보는 “뭐든지 얼려 만드는 아이스크림!”
내 맘대로 입맛대로! 다양한 과일 아이스크림이 뚝딱!



재 료 : 딸기 혹은 좋아하는 과일, 사이다(+우유) 혹은 원하는 음료수

만들기 : 1 과일은 모양을 살려 슬라이스한다.
(포도나 블루베리같이 알이 작은 과일은 깨끗하게 씻어서 틀에 넣어주기만 해도 예쁜 아이스크림 재료로 완성!)
2 자른 과일을 틀 중간까지만 넣고 음료를 부어준다.
(막대를 넣어 고정해야 하니까 꼭 채우면 안돼!)
3 틀에 막대를 고정시켜 냉동실에 얼려준다.
(3~4시간 이상 얼려줄 것!)

Tip

후르츠 칵테일과 크랜베리 주스 등 색상이 상큼한 주스를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면 보는 맛도 한층 더 업! 음료는 얼리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취향에 따라 시럽을 추가해 보는것도 좋을 것 같아!

부드러운 우유와 달콤한 딸기의 조화!
스트로베리 밀키웨이



또 하나의 꿀팁!

몰드가 없어도 괜찮아!

1 집게와 나무젓가락을 준비!
2 기다란 용기(얼려도 깨지지 않는 컵)에 랍을 두 세겹 겹쳐 덮어주자!
3 랍의 중앙 부분에 칼집을 낸 후 나무젓가락을 꽂아주고 집게로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 주면 아이스바 몰드 없이도 집에서 간단하게 아이스크림을 만들 수 있어!

「EXO INTERVIEW」

서로에 대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엑소가 아이비클럽을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풀어 놓으려 한다.
일거수일투족이 이슈가 되는 EXO에게 아이비클럽이 몰았다.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서부터 함께 무인도에 가고 싶은 멤버까지...
그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여기에 집중하라!



KAI

엑소 카이 / 염소자리, 940114

Q. 여름에 가장 가보고 싶은 여행지는?

A. 하와이에 꼭 한 번 가보고 싶습니다.

Q. 본인이 1위 하고 싶은 설문지를 만든다면?

A. 한국에서 제일 맛있는 남자는?

Q. 일주일 동안 소속사 사장이 된다면 엑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A. 하와이 여행.

Q.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A. 물 위에서 춤 추는 티저 찍다가 바지가 터졌던 일.. 잊혀지지 않는 흑역사예요.

Q. 카이가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멤버는?

A. 무서운 멤버는 없어요. 모두 다 착해요.



BAEK HYUN

엑소 백현 / 황소자리, 920506

Q. 다음 앨범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또는 스타일이 있다면?

A. 자유분방한 컨셉으로 찍고 싶어요!

Q. 스스로 돈을 벌고 처음 산 것은?

A. 애플 결제.

Q. 최근 재밌게 본 영화는?

A. 타임패러독스 재밌게 봤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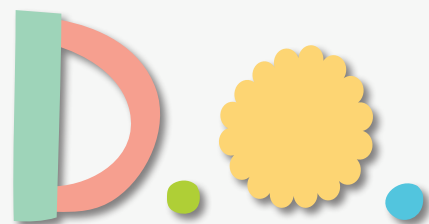
Q. 도전 해보고 싶은 여름 스포츠는?

A. 스케이트보드를 제대로 배워보고 싶어요.

Q. 백현이 생각할 때 가장 연예인같은 멤버는?

A. 가장 자유로운 영혼, 타오.





엑소 디오 / 염소자리, 930112

Q. 특이한 습관이나 징크스가 있나?
A. 손톱을 물어 뜯는 습관이 있어요..

Q. 무인도에 간다면 함께 가고 싶은 멤버와 이유는?
A. 판단력이 현명한 백현과 같이가고 싶습니다.

Q. 추천해주고 싶은 국내 여행지?
A. 대전 계룡산.

Q. 잠이 안 올 때는 보통 뭘 하는지?
A. 보통 영화를 봅니다.

Q. 디오가 생각할 때 가장 재밌는 멤버는?
A. 변 백 현.
우리팀의 분위기 메이커.

Q. 최근 가장 뿌듯했던 일은?
A. 첫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무리한 일.

Q. 스스로 돈을 벌고 처음 산 것은?
A. 노트북.

Q. 데뷔 전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멤버는?
A. 세훈. (멋있었다기보다 예뻐다)

Q. 잠이 안 올 때는 보통 뭘 하는지?
A. 애니메이션을 본다. (원피스)

Q.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는 멤버는?
A. 팀의 막내인 타오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엑소 시우민 / 양자리, 900326



엑소 세훈 / 양자리, 940412

SEHUN



Q. 가장 좋아하는
여름철 보양식은?
A. 삼계탕이 좋아요.

Q. SNS나 인터넷에
본인의 이름을
자주 검색해보는 편인가?
A. 음... 모든 연예인이
다 하지 않을까요...

Q. 무인도에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와 이유는?
A. 다 같이 가고 싶어요.

Q. 본인이 1위 하고 싶은
설문지를 만든다면?
A. 무표정한 연예인이라는 설문조사가
있다면 제가 1위를 할 것 같아요.

Q. 세훈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멤버는?
A. 없어요. 심성이 다 '양' 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냥 사랑한다...



Q. 스스로 돈을 벌고 처음 산 것은?
A. 책상을 샀습니다.

Q. 본인이 1위 하고 싶은
설문지를 만든다면?
A. 가장 키가 큰 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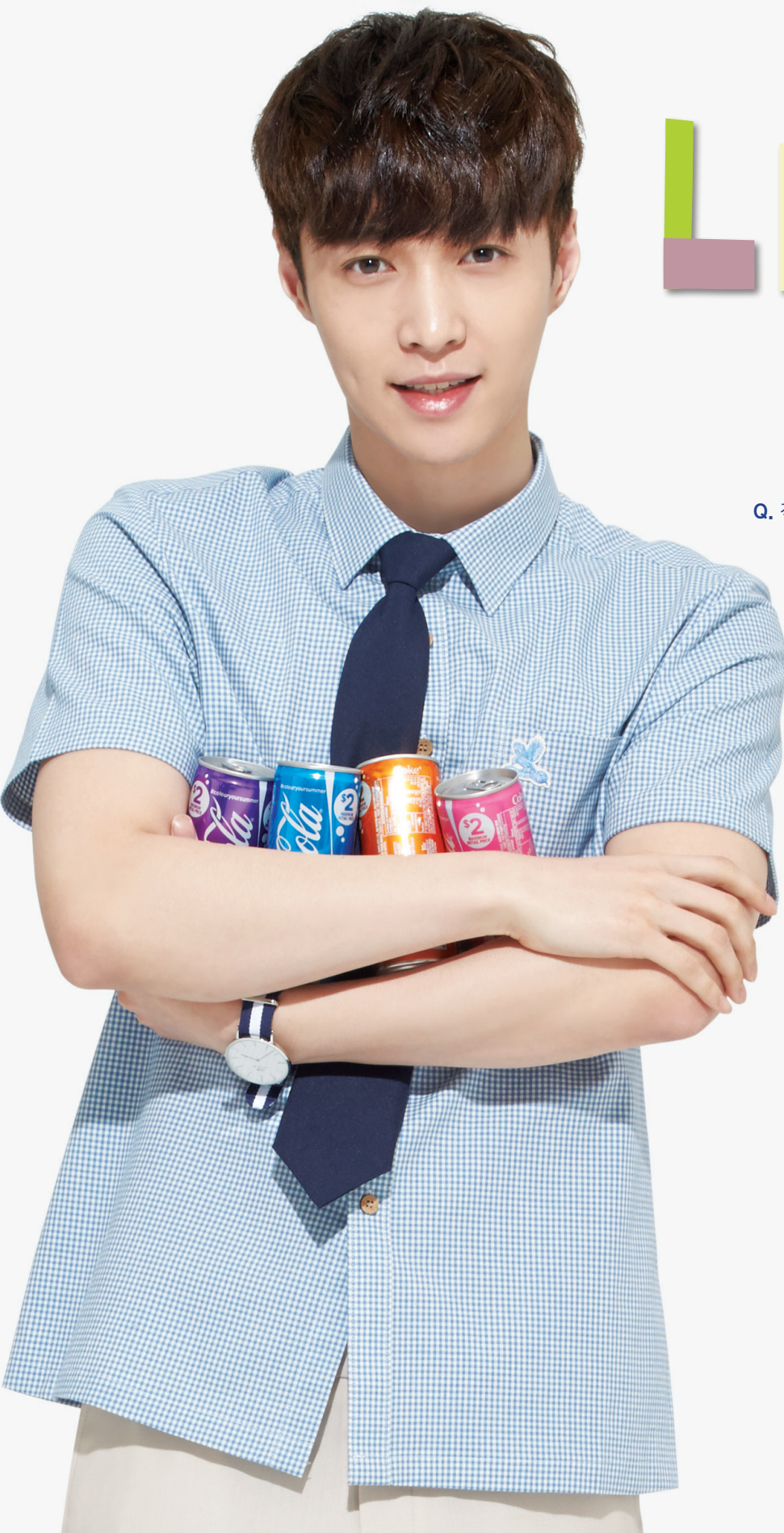
Q. 숙소가 가장 시끄러워 질 때는?
A. 아무래도 멤버 생일 때
가장 시끌벅적 한 것 같아요.
생일 축하하는 역시 요란해야 제맛이죠.

Q. 영화 촬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A. 연기를 제대로 하는 건 처음이라
거의 모든 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함께 촬영하는 선배님들이 많은
조언을 해주셔서 감사히 배우면서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Q. 찬열이 생각할 때 나와
가장 비슷한 멤버는?
A. 음..디오, 백현이 가장
비슷한 것 같아요!

엑소 찬열 / 사수자리, 921127

CHAN
HYEOL



엑소 레이 / 천칭자리, 911007

Q. 작곡을 할 때 보통 어디서 영감을 얻는지?
A. 평소 생활하면서 얻는다.

Q. 일주일 동안 소속사 사장이 된다면 엑소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A.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특히 중국에서 더 많은 팬들을 만날 수 있는 활동을 하게 해주고, 중국의 다른 능력 있는 사람들과 같이 노력해서 엑소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Q. 아직도 헛갈리는 한국어가 있다면?

A. 오, 어, 가, 까, 카 헛갈려요.

Q. 무인도에 간다면 같이 가고 싶은 멤버와 이유는?

A. 시우민, 첸. (원래 잘해요 이런거), 타오. (정글에 갔다 와서)

Q. 앞으로 10년 뒤 엑소 멤버들을 상상한다면?

A. 우리 멤버들은 잘 살고 있을 것 같아요^^

Q. 해외 공연 중 가장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A. 콘서트 때 팬 여러분께 싸인볼을 던져 주는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가 던진 공이 팬분 머리를 맞췄던 일이... 그분께 너무 미안했다고 꼭 말해주고 싶네요.. ㅎㅎ

Q. 최근 가장 즐거웠던 일은?

A. 최근에 친구들과 함께 롯데월드에 다녀왔었던 일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정말 신나게 놀고 왔습니다.

Q. 데뷔 전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멤버는?

A. 시우민 형과 수호 형. 처음 두 형들을 봤을 땐 정말 나보다 어리겠구나 생각했을 정도로 어려 보였고 만화주인공 같은 외모에 깜짝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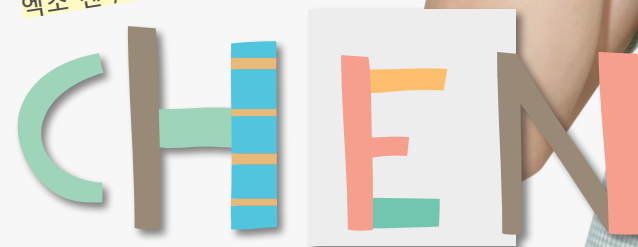
Q. SNS나 인터넷에 본인의 이름을 자주 검색해보는 편인가?

A.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ㅎㅎ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 무대를 하고 나서 영상을 찾아보는 것은 꼭 합니다.

Q. 첸이 생각할 때 가장 귀여운 멤버는?

A. 세훈이. 역시 막내는 막내인 듯 하네요! 세훈이가 장난치는 모습이나 빠질 때보면 귀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ㅎㅎ

엑소 첸 / 처녀자리, 920921



SUHO

엑소 수호 / 쌍둥이자리, 910522

Q.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있다면?

A. 첫번째 공중파 1위 때 두쉬두쉬.. 후... 내가 왜 그랬을까...

Q. 수상소감 종결자 수호, 따로 연습을 하기도 하는지?

A. 데뷔 초 때는 연습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날 느끼는 대로 상을 혹시라도 받으면 이 말은 꼭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 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Q. 요즘 하는 가장 큰 고민은?

A. 어떻게 하면 역대급 앨범과 역대급 콘서트를 할 수 있을까.

Q. 수호는 요즘 OO에 빠져있다!

A. 수호는 요즘 참살이에 빠져있다.

Q. 물가에 내놓은 것처럼 걱정이 되는 멤버는?

A. 세훈, 타오. 매일 연락 해요. 연락이 가끔 안되면 걱정이 돼요...



TAO

엑소 타오 / 황소자리, 930502

Q. 다음 앨범에서 도전해보고 싶은 컨셉 또는 스타일이 있다면?

A. 특별한 거 보단 다음 노래에 맞는 컨셉.

Q. 최근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자면?

A. 팬들 만나서 인사해 준 거
팬들을 만날 때가
항상 뿌듯하고 보람있어요.

Q. 추천해주고 싶은 해외 여행지는?

A. 내 고향 중국 칭다오를 추천합니다.

Q. 데뷔 전 멤버들을 처음 봤을 때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멤버는?

A. 수호, 세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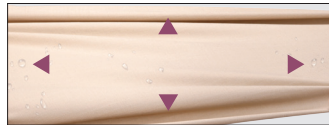
Q. 타오가 생각할 때 가장 4차원인 멤버는?

A. 타오 저요.





4방 파워 스트레치 원단



기존의 2방향이 아닌 **4방향 스트레치**로 신체의 운동성향에 맞게 자유자재로 늘어나 **편안한 착용감**과 **활동성**이 뛰어납니다.

적용복종:바지, 스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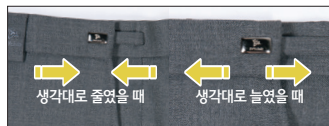
Ultra 초발수 가공 원단



3M™ 스카치gard 용제를 사용하여 원단의 표면장력을 상승시켜 **우유나 김치국물** 등을 바로 **흡수하지 않고** 흘러내리게 합니다.

적용복종:바지, 스커트

생각대로 바지



허리사이즈를 **최대 8cm**까지 마음대로 조절하는 원터치 슬라이드 후크로 **허리에 꼭 맞는 스타일**이 가능합니다.

적용복종: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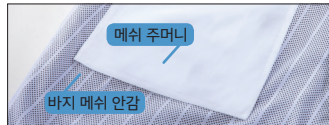
등판 메쉬 안감



DTY 꼬임을 준 메쉬안감으로 교복이 **피부에 감기는 것을 방지**하여 산뜻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적용복종:와이셔츠, 블라우스

메쉬 안감 & 메쉬 주머니



- 1.메쉬 안감: 엉덩이 부분에 메쉬 안감을 덧대어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습니다.
- 2.메쉬 주머니: 메쉬 소재의 주머니로 **감촉이 부드럽고 통풍성이 우수**하여 **시원**합니다.

적용복종:바지

IVYclub Style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IVYCLUB

우리학교는
아이비클럽 교복을 입어!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착한가격 | 완벽한 품질 | 100% 국내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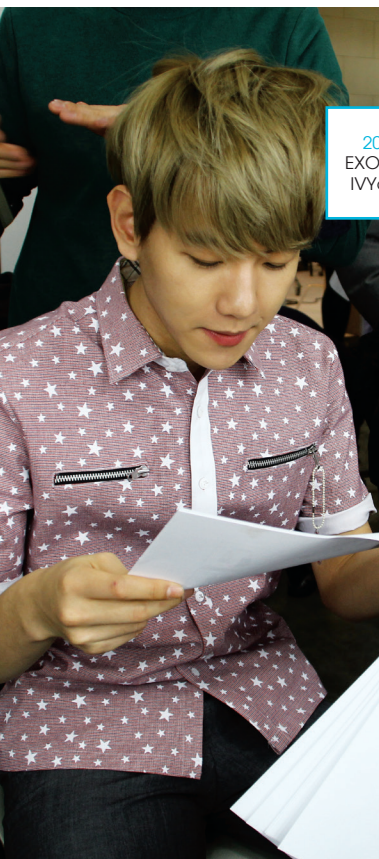


2013
EXO with
IVYclub



EXO와 함께한 IVYCLUB Summer 촬영 히스토리

2012년 가을부터 함께 한 엑소와 아이비클럽.
시간이 흐른 만큼, 아니 그 보다 훌쩍 성장해 버린 슈퍼스타 엑소와 함께 해 온
아이비클럽에서 13'~15' Summer Season 촬영 히스토리를 공개한다.



2014
EXO with
IVYclub



추웠지만 훈훈했던 Summer 촬영 현장

2013년의 추운 겨울날, 산뜻하고 상큼한 무드의 13S 아이비클럽 화보 촬영을 위해 EXO-K
를 만났다.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촬영이 이루어질 세트장이 제법 추웠던 지라 걱정이
앞섰는데, 촬영 장소에 도착한 EXO-K는 밝은 모습으로 싫은 기색 하나 없이 들떠 보였다.

소품으로 준비된 과자 상자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손을 움직이는 **디오!** 하지만 결과는 비어
있는 빈 상자. 아쉬워하며 상자를 제 자리로 돌리는 모습이 어린이아이 같아 매우 귀여웠다.
이어진 촬영에서의 **찬열**과 **카이**는 '밝은 표정으로 즐겁게~'라는 표정에 대한 주문을 하자
서로를 바라만 봐도 즐거운지 금방 커다란 웃음이 튀어나왔다. 주변의 스태프들 역시 EXO-K
를 바라만 봐도 행복해 다들 훈훈한 엄마 미소를 발사했다는..^^ 시원스레 웃음을 터트리
는 그들의 웃음은 바라만 봐도 해피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지는 듯했다.



Baek-Hyun

살아있는 손끝과 발끝!
아이비클럽의 상큼 발랄함을 제대로 표현
해 주는 백현은 역시 천상 모델!

다른 멤버들을 기다리며 난로 앞에서 헤어를 수정
하던 **백현**에게 내밀어진 **찬열**의 도전장! 두 손가락
으로 이겨주겠다는 **백현**과 **찬열**의 팔씨름은 과연
누가 이겼을까? (그들의 승부는 아이비클럽 친구들
의 상상력에 맡기겠다.)

2014년 겨울, 다음 여름 시즌 촬영인 14S 촬영에는
전반적으로 장난감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래서일
까? 촬영장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들떠있었다.
소품으로 준비된 장난감 자동차를 조종하는 **찬열**을
보니 길쭉길쭉 모델 같은 환철한 모습에 자동차가
마치 고급 외제차처럼 보였다면 오버일까?!!
이 모습을 발견한 **수호**와 **백현**이 다가와 자동차에
관심을 보였는데, **백현**이 택한 것은 노란색 자동차!
수호는 자동차들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선뜻 한가지
자동차 장난감을 고르지 못하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
다. 아이들이 문구점에서 장난감을 신중하게 고르는
듯한 귀여운 엑소 멤버들의 모습에 촬영장에 있는
스태프들도 같이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호의 고민이 길어지자 **찬열**이 흰색 자동차가 어떠
냐며 추천했지만 끝내 한가지 자동차 장난감으로 마
음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촬영이 시작되어버렸다.
촬영장의 분위기를 즐겁게 하는 역할도 도맡아 하면
서 동시에 촬영에 관해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 위해
컨셉에 관해 열심히 공부하던 **백현**은 언제 장난쳤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다. 이런것이 진
정한 프로의 모습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감탄했다.
엑소 멤버들도 긴 시간 촬영 때문에 지치고 힘을 텐데
전혀 지치는 내색 없이 저렇게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주는 덕분에 촬영장의 분위기는 오늘도 맑음이다.



- 1 꼼꼼히 촬영 내용을 숙지하는 디오
- 2 장난감 자동차를 탄 모습이 귀엽디오
- 3 애교쟁이 '김형제' 첸과 시우민



2014
EXO with
IVYclub



SUHO

투명하리만치 흰 피부를 자랑하는
엑소의 리더 수호! 수호가 입으면
어떤 컬러의 의상이라도 빛을 발한다.
댄디, 카리스마, 큐트! 어떤 컨셉이라도
훌륭히 소화하는 매력쟁이!



상큼 발랄! 톡톡 튀는 매력의 EXO

촬영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지루하거나 지치기 쉬운데 엑소 멤버들은 그 시간들을
오히려 재미있고 즐겁게 보내고 있었다. 이날 촬영에서는 다양한 소품들이 준비되
었는데, 촬영 내내 소품들을 가지고 놀거나 장난치는 모습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엑소의 만형 중에 만형 **시우민**도 분홍색의 홍학 인형을 보더니 말없이 쓰다듬으며
관심을 보였다. 분홍색 홍학 인형과 함께 있는 **시우민**의 모습을 보니 하얀 피부가
더욱 하얗게 보였다. 주변의 대기 중인 멤버들도 저마다 인형을 품에 안고 장난치는
모습이 연출되어 현장 스태프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동물 인형들에 큰 관심을 보인
첸은 그중에서도 퍼그(강아지) 인형에 제일 관심을 보였다. 동물을 사랑하는 멤버들
의 모습에서 정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촬영 대기 중이던 **수호**는 인형 소품들과 함께 준비된 과일 소품을 발견하고는 큰
관심을 보였는데 여러 과일들 중 레몬을 보더니 현장 카메라를 향해 상큼한 표정
연기를 보여주는 개구쟁이 모습도 보여주었다.

촬영 중간 식사시간에 여러 인터뷰에서 커피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던 **시우민**이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며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마치 한편의
커피 광고를 보는 듯한 흐뭇한 미소를 발산하게 하는 **시우민**의 커피 마시는 모습은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외모는 중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엄청난 동안이지만,
커피를 즐길 줄 아는 남자 중의 남자~



2015
EXO with
IVYclub



아이비클럽과 엑소가 함께하는 Summer Vacation

또다시 일 년을 지나 찾아온 **2015년** 여름 화보 촬영! 역시나 아침부터 시작된 촬영에 지칠
법도 한데, **첸**은 도착해서 준비를 마치자마자 촬영에 대한 참고 자료를 열심히 보고, 나머지
멤버들도 나눠준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습이였다. 역시 언제나 노력하는 대세다운 자세!
뒤따라 준비를 끝낸 **백현**도 집중해서 준비된 자료 보드를 살펴보고있다. 추운 겨울날 진행된 여
름 화보 촬영이었지만, 촬영 중반으로 넘어가자 스튜디오 내부가 후끈후끈 따뜻해져서 여름
교복을 입은 모델들이 촬영하기에 쾌적해졌다. (덕분에 스태프들은 땀을 뻘뻘 흘려야 했지
만, 소중한 EXO가 감기에 걸려서는 안돼! 하며 부채질을 했다고..)

이날 촬영에는 다양한 간식거리가 소품으로 준비되었는데, 한쪽에 소품으로 준비해 둔
솜사탕을 누군가 자꾸 뜯어먹어서 범인이 누굴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았더니, 범인은 **찬열**
과 **첸**이었다. 교복을 벗은 지 꽤나 된 20대 남자지만, 달달한 간식거리 앞에서는 아이 같아
지는 EXO의 귀여운 모습도 엿볼 수 있었다.

세훈은 무표정으로 있을 때는 세상 제일 가는 매력적인 차도남이었다가, 이렇게 간식 소품과
함께 큐트한 무드로 촬영을 진행하니 귀엽기 그지없는 막내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말랑말랑
부드러운 마시멜로가 **세훈**의 부드럽고 귀여운 분위기와 어우러져 사랑스럽기 그지없다.

촬영 중반에 이르러서는 EXO와 함께 떠난 여름 바캉스 컨셉의 씬이 진행되었는데, 이때
사용된 빈티지 카메라 소품이 꽤 무거워서 들고 포즈를 취하기 힘들지 않았냐는 걱정을
했었는데, 아무렇지 않게 거뜬히 들고 촬영하는 **찬열**을 보고 역시 남자구나 싶었다.
이러진 촬영에서는 **찬열**, **세훈**, **첸**이 블랙&화이트의 아이비클럽 생활복을 입고 촬영에
임했다.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능숙하게 연출하면서도 스타일리쉬함은 놓치지
않았다. 세 사람의 풋풋한 미소가 시크하고 스타일리쉬한 의상을 더 돋보이게 했다.

하루 종일 진행된 촬영에 지쳐갈 무렵, 저녁으로 치킨과 피자가 배달되자 EXO 멤버들이
하나 둘 음식 곁으로 모여들었다. 지켜보다 보면, 먹성이 참 좋은데 어떻게 살이 안 찌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그만큼 자기관리를 하고, 열심히 연습을 하기 때문인 것 같다.

길었던 촬영이 끝나고, 먼저 끝난 멤버들이 퇴근을 하면서도 꾸벅꾸벅 모든 스태프들에게 찾아
와 예의 바르게 인사하던 모습을 보고 변치 않는 EXO의 모습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이렇게
나 인기가 많아지고 대세 중의 대세, Top of Top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변하지 않고 노력하며
예의 바른 EXO에게 더욱더 빠질 것 만 같다. |



- 1 커피 한 잔과 함께 하는 시우민의 휴식시간
- 2 부지런히 간식을 챙기는 첸과 시우민
- 3 소품인 솜사탕을 탐내는 찬열의 손길!





정용화, “나의 20대는 ‘해적선’ 같다”

정용화가 만든 노래엔 좋은 에너지가 가득하다. 곡마다 그것들이 표현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 그의 음악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자신이 힘들 때조차도 날 것의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었을 때 좋아질 만한 노래가 될까”를 생각하는 남자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기에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고 느껴도 그가 겪었을 수많은 어려움은 그의 노래에선 쉬이 느낄 수 없다. 솔로 앨범 ‘어느 멋진 날’로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을 내어놓은 그와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

글. 이정화 / 사진. 구혜정 / 제공. 텐아시아(www.tenasia.co.kr)

- Q. 이번 솔로 앨범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증명할 수 있었던 것 같나.
증명이라기보다는, 노래를 열심히 만든 것에 대한 보답을 받은 느낌이다. 주변에서 ‘좋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아해 주시는 것 같다. 다음에도 더 좋은 노래로, 더 발전했던 얘기를 들도록 열심히 해야지.
- Q. 창작자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동력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만드는 과정 자체가 즐거워서, 아니면 완성된 결과물에 대한 대중의 환호에서 오는 희열 때문에. 정용화는 어느 쪽인가?
둘 다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가야 하는 것 같다. 만약, 열심히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잘 안 되면,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많이 사랑해 주시면, 탄력을 받아서 또 열심히 하게 되고, 제일 좋은 건, 재미있어서 하는 거다. 재미없어서 하기 싫을 땐, 바로 접는다. 하고 싶을 때 써 놓으면 되니깐.
- Q. 하기 싫어지는 기간이 길어지는 때도 있나.
일단, 너무 피곤하면 그렇다. 그래서 활동하면서는 잘 안 쓴다. 웬만하면 앨범 활동이 끝나고 나서 작업에 들어간다. 계속 쓸 수는 없다. 자판기처럼 버튼을 누른다고 (곡이) 나오는 게 아니니깐. 지금, 앨범 하나를 다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곡들을 써놓긴 했지만, 이게 또 앨범에 어울려야 하니, 그거에 맞춰서 해야 한다.
- Q. ‘어느 멋진 날’ 앨범의 경우, 미리 써놔던 것들 중에 조합하기도 한 건가?
새로 쓴 것도 있고 써 놔던 걸 고친 것도 있다. ‘체크메이트(CHECKMATE)’는 원래 써놔던 곡이고, ‘마일리지(MILEAGE)’는 멜로디만 작업해 둔 거였다.
- Q. 솔로 앨범 구상을 2년 전에 했다고 들었다. 계기가 있었나?
씨엔블루 노래를 계속 써오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야 시너지가 있을 것 같았다. 거기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았거든. 그 당시엔 하드한 것도 해보고 싶었고... 많은 걸 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차분해지는 음악을 하게 된 것 같다.
- Q. 앨범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시점과 최근 사이, 심적인 변화가 있었던 걸까?
그런 건 너무 많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라기보다, 음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힘든 일이 많이 있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해결해야지, 라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깐. 시간이 지나면 된다. 괜찮아진다.
- Q. 원래의 정용화가 음악을 만든다면 어떤 스타일이 나올 것 같나.
완전 들쭉날쭉 할 거다. 장르도, 이야기도, (웃음) 내가 계속 (웅크리는 동작 하며) 이려고 살진 않을 테니깐. 짜증 날 땐 짜증도 내고, 이게 진짜지. 그렇다고 해서 그 짜증을 음악에 퍼붓고 싶지는 않다. 그건 또 싫다. 아직까진 사람들이 내 음악을 통해 좀 더 좋은 감정을 느끼거나 힐링을 받았으면 한다. 내가 힘들고 그럴 때, 그걸 그대로 음악에 다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들었을 때 좋아질 만한 노래가 될까, 이렇게 한 번 꼬아서 생각을 한다.
- Q. 올해 스물일곱, 가수로 데뷔한 지 햇수로 6년이다. 사회에선 이 정도 연차가 되면 일에 불을 붙이기 위한 땀방울이 조금씩 바닥을 보여 다시 채워 놓아야 하는 시기이다. 정용화의 땀방울은 어디에서 구해오나?
아...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난... 아직 난, 다 보여주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30대가 돼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 Q. 정용화의 20대는 순항 중인가?
내 20대는 ‘해적선’ 같은 느낌이다. 순탄하지 않다. 싸우기도 하면서, 뺏을 건 뺏어야 하고, 뺏길 건 또 뺏기고 하는, 그런 해적선. 어떤 때는 여우같이 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곰처럼 해야 될 때도 있고, 많이 어렵다.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사회에선 친하다고 다 친한 것도 아니고... 자식처럼 잘 맞는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게 참, 표현하기가 어렵네.
- Q. 인생에서 캠퍼해 두고 싶은 순간이 있다면 그건 언제일까? 즐거웠든 힘들었든, 기억해 두고 싶은 때가 있지 않나.
학창시절을 통으로 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의 하루하루는 정말 밋밋했다. 매일 학교만 가던, 별것 없던 하루하루였는데, 다 추억이 되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다. 지금의 난 평범한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깐.
- Q. 그래도, 요즘의 어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연습생 생활을 하다 데뷔하는 것과 달리 나름대로 학창시절을 풍족하게 보내고선 가수가 되었다. 그때가 음악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다 내게 도움이 되어 주고 있다. 뿌듯하다. 물론 일찍 가수 활동을 시작하는 것에도 장점이 있겠지만 그 시간을 보내고 온 것의 장점도 많다. 그 시절을 다 보내고 와서... 좋았다.



정용화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텐아시아(www.tenasia.co.kr)에서 확인해주세요!

HIGH4 하이포, 이제 혼자서도 잘해요

그룹 하이포에겐 영광스러우면서도 부담이 큰 꼬리표가 있다. 바로 '피처링의 힘'. 하이포는 아이유와 함께 데뷔를 장식한 '봄 사랑 뱀꽃 말고'와 이후 김예림과 함께 부른 '해요 말고 해'까지, 화려한 선배 여가수의 지원 사격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치렀다. 이후 '뱅뱅뱅'을 발표했지만, 두 가수와 작업한 곡들보다 반응은 크지 않았다. 거품이라는 비판도 감내해야 했다. 새해가 된 지난 5일, 하이포는 '비슷해'라는 곡으로 다시 한 번 컴백했다. '비슷해'는 힙합 알앤비 장르의 곡 '비슷해'는 남자들의 사랑과 그 후에 찾아온 이별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새드 러브송. 하이포가 '뱅뱅뱅'에서 보여준 밝은 모습과는 상반된 매력을 보인다. 반응도 좋다. 공개 직후 하이포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비슷해'는 서로 다른 음악적 매력을 지닌 네 멤버의 만남이 잘 어우러지는 만큼 기대도 크다.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하이포의 모습을 만날 차례다.

글. 박수정 / 사진. 구혜정 / 제공. 텐아시아(www.tenasia.co.kr)

Q. 신곡 '비슷해'는 이전에 발표했던 '봄 사랑 뱀꽃 말고', '뱅뱅뱅'과 다른 스타일이다. 변신의 이유는 무엇인가?

명한: 2014년에 한 장르만 하지 않고 다른 장르를 보여주겠다고 포부를 밝힌 적이 있다. 그것과 일맥상통한다. 데뷔 때는 퍼포먼스적인 무대를 보여줬다면 이번엔 감성적으로 다가가려 했다. 또 겨울이라는 시기가 맞았다.

Q. 좋은 반응도 얻고 있다. '비슷해' 공개 이후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명한: 처음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누가 말해줘서 알았다. 사실 실시간 검색 1위를 이유를 모르겠다. 하하. 하지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 하이포라는 존재를 알고 있다는 생각에 정말 좋았다.

성구: 나는 그때 알렉스와 SBS '스타킹' 촬영 중이었는데 작가님들이 소식을 들려줬다. 정말 신기했다.

Q. 지난해 소속사 대표와의 대담 인터뷰에서 하이포는 소속사를 '음악을 하기 위한 최고의 조건'이라고 했다. 그만큼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는 말이었다. 이번엔 어떻게 의견을 냈나?

명한: 무대 구성에 신경을 썼다. 이 노래의 안무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래퍼들이 각자 다 작사도 했다.

알렉스: 원래 '비슷해'는 조금 더 신나는 노래였는데 겨울이니까 조금 더 감성적으로 가면 어떨까 의견을 냈다. 도입부를 부드럽게 발라드 처럼 들리게 슬프게 가자고 했다. 많은 수정 작업을 거쳤다.

Q. 네 사람이 모두 음악 스타일이 다르다고 했다. 선호하는 장르가 있나?

명한: 미디엄 템포에 알앤비 느낌을 가미한 그루브한 곡을 좋아한다.

성구: 나도 미디엄 템포 쪽을 좋아하는데 댄스 장르도 좋아한다.

영준: 센 힙합 좋아한다. 강한 힙합 좋아하는데 하이포가 그런 음악을 하는 팀이 아니다. 그래서 솔로곡 욕심도 있다.



성구: 영준이가 믹스테이프도 있다. 노력 중이다.

알렉스: 많은 장르를 잘 하려고 노력한다. 알앤비 힙합, 미디엄 템포 그쪽 스타일을 좋아한다.

명한: 아, 요즘 알렉스 형이 노래 연습까지 한다. 파트를 위협받고 있다.

Q. 서로 다른 네 사람이 모여 만드는 시너지가 있는 것 같다.

성구: 명한이가 도입부에서 색다른 음색으로 접근을 하면 알렉스 형이 또 다른 음색으로 나긋나긋하게 판을 깬다. 이후 내가 후렴구에서 터져주고, 영준이가 세계 간다. 그런 절차가 있다. 그래서 처음 앞에 있는 두 멤버가 중요하다. 그래야 우리까지 들을 수 있다. 다 잘해야지.

영준: 목소리만으로 기승전결이 있다.

성구: 명한이랑 내 목소리가 톤이 비슷했으면 이런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 완전 극과 극이니까 매력이 있다.



Q. 슬픈 감정영기도 그렇고, 이번에는 콘셉트의 변화가 있었다. 콘셉트가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은 누구였나?

명한: 나는 성구형! 나는 멍하게 때리면 정말 정신을 놓은 것 같이 보이는데 성구형을 쓸쓸함을 정말 잘 표현한다.

성구: 너무 쓸쓸해서 외로움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하하.

알렉스: 사실 명한이가 남자다운 이미지는 아닌데 이런 이미지도 낼 수 있구나 알게 됐다.

성구: 알렉스 형은 멋을 아는 것 같다. 걷는 거 빠고는 괜찮다. 눈빛이 좋아서. 하하.

명한: 무대에서도 알렉스 형의 눈빛이 좋다. 나는 멋있어 보이려고 얼굴 표정을 다양하게 시도하는데 형은 쳐다 보는 것밖에 안하는데도 멋있다.

성구: 영준이는 그냥 잘 생겼으니까.

알렉스: 비주얼은 말할 필요도 없다.

Q. 곧 있으면 데뷔 1주년을 앞두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을 꼽는다면.

성구: '봄 사랑 뱀꽃 말고'은 발표하고 활동을 하지 않았던 노래다. 그래서 얼마만큼 인기가 많은지 체감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어떤 행사를 갔는데 '봄 사랑 뱀꽃 말고' 떼창을 하더라. 와, 대박!

명한: 나도 '봄 사랑 뱀꽃 말고'에서 아이유님을 처음 봐서 기억에 남는다. '해요 말고 해'에서는 김예림 선배님을 만나 기억에 남는다. TV 속 사람을 만나서 공동 작업을 하게 돼 신기했고, 뮤직비디오도 같이 찍어서 감사했다. '뱅뱅뱅'은 잘하지 못하는 장르였다. 난 '해요 말고 해' 장르가 어울리는데 '뱅뱅뱅'으로 많이 배웠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 '비슷해'는 잘했다. 칭찬을 처음 들어서 기억에 남는다.

영준: 난 '비슷해' 가사를 쓸 때, 다른 곡보다 오래 걸렸다. 혼자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다. 내 경험을 꺼내서 쓰려고 해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별 후기를 찾아보고 나 자신도 우울감에 빠져들고 그랬다. 어떻게 하면 잘 썼다고 소리를 들을까보다 차라리 제일 뻔한 게 공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쓰게 됐다. 너무 어려웠는데 완성되니 뿌듯했다.

알렉스: 나도 내 파트가 잔잔해 가사 쓰기가 힘들었다. 지금까지 비트에 맞춰서 힙합스러운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엔 무반주로 슬픈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많은 경험이 없어서 감정을 내기가 힘들었다. 영준이랑 둘이서 고생했다.

Q. '비슷해' 활동하면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명한: 노래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은데 노래를 잘한다는 이야기는 없더라. 노래 잘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다.

성구: 제일 좋은 댓글이 '하이포 혼자 나와도 괜찮네'라는 그런 말이었다. 더 듣고 싶다. '뱅뱅뱅' 활동 때는 거품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비슷해'는 그 말이 없다. 그걸 더 보여주고 싶다.

알렉스: '노래 좋다'보다 '완전 잘한다'는 말. 실력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다. 더 노력하고 싶다.

성구: 믿고 듣는 가수. 노래 하나 버릴 곡이 없는!

Q. 가수라는 꿈을 이뤘는데 꿈 너머 꿈이 있다면.

성구: 하이포가 정말 큰 무대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는 것이 목표다. 소극장이라도 우리끼리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

영준: 나이가 들었을 때, 아이돌이라기엔 나이가 많아졌을 때 다 각자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다. 각자 가족들 데리고 와서 피크닉 가고, 애들 뛰어다니는 거 흐뭇하게 보는 그런 상상을 한다. 하하하.

성구: 영준이가 항상 형들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한다.

알렉스: 신화 선배님들처럼! 그리고 음악적으로는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즐겁게 듣는 걸 보고 싶다. |



하이포의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텐아시아(www.tenasia.co.kr)에서 확인해주세요!

IVYclub Style

다리가 길어보이는 학생복, 아이비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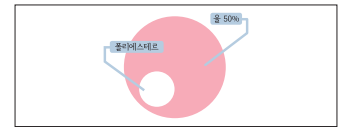
자외선차단 원단



자외선을 99.5% 차단하여 뜨거운 태양 아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줍니다. 또한, **항균 방취** 기능으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시켜 줍니다.

적용복종: 블라우스, 와이셔츠

사이로필 원단



호주산 메리노 **울 50% 함량 +2/50S 고급 원사**를 사용해 부드러운 감촉과 **몸에 달라붙지 않는 효과로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용복종: 스커트, 바지

완소라인



봉제사로 노출된 시접 부분에 다시 한번 **테이프 처리**를 하여, 피부 마찰을 최소화한 **으로 줄이고 쾌적한 착용감**을 더해 **완벽한 실루엣**이 되도록 합니다.

적용복종: 블라우스, 와이셔츠

에어존



하루종일 **뽐뽐산뜻**하게 땀을 **빠르게 흡수**하고 말려주는 **에어로쿨**이 땀과 냄새를 순식간에 없애줍니다.

적용복종: 블라우스, 와이셔츠

슬림&환상라인 스커트



아이비클럽 슬림&환상라인 스커트의 **곤살지퍼라면 실루엣도 살아나고, 뱃살까지 쏙~** 들어가 보입니다.

적용복종: 스커트

※일부품목 제외

IVYCLUB + Fashion Item



유행에 민감하지만 코디가 고민되는 아이비클럽 친구들을 위해서 플라워 패턴의 아이템을 멋스럽게 연출하는 법을 알려줄게!

봄 하면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바로 플라워 패턴이지. 따듯한 봄이 오면서 플라워 패턴 아이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
2015년에는 화려하고 강렬한 컬러의 플라워 패턴이 유행 할 거야!



Style 1. 레이스 양말

기본 스타일 운동화에 레이스 양말을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한층 더 소녀스럽고 화사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 발목을 두르는 커다란 형태의 레이스가 부담스럽다면 촘촘하고 작은 레이스가 포인트로 달려 있는 양말을 이용해서 러블리한 느낌을 표현해봐!

Style 2. 플라워 패턴 헤어밴드

너무 멋진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헤어밴드 하나만으로 화사함이 UP UP! 헤어밴드를 선택할 때는 자신의 피부 톤을 생각하고 결정하는 게 중요해. 피부가 붉은 편이라면 하늘색이나 민트색이 좋고 혈색이 없는 편이라면 핑크나 오렌지 계열이 좋아.

Style 3. 플라워 패턴의 슬립온

화려한 플라워 패턴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신발에 포인트를 주는 게 어떨까? 은은한 컬러의 작은 플라워 패턴은 소녀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기에 제격이야. 아직 플라워 패턴이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스트라이프 패턴에 꽃이 포인트로 들어간 슬립온을 추천해.

Style 4. 영문 프린팅 기본 에코백

에코백으로 화려한 플라워 패턴 의상을 부드럽게 만들어봐~! 화려한 패턴의 상의에는 가죽이나 컬러풀한 가방은 정신없는 스타일링으로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 있어. 기본 에코백으로 심플하게 연출해주면 화려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중화시켜 줄 거야!

Style 5. 가디건

봄날의 발랄한 소녀처럼 가디건을 어깨 위에 올려 묶어서 스포티하고 활동성 있는 스타일을 강조해 주는 스타일링을 해 보는 건 어떨까? 프린트가 있는 티셔츠에는 단색이나 데님으로 된 셔츠를, 베이직한 티셔츠에는 단가라나 셔츠를 어깨 위에 묶어서 가디건처럼 연출해봐~!

Style 6. 손목밴드

액세서리 없이 심심한 패션은 이제 그만~ 포인트 액세서리로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밴드 형태의 스포티한 팔찌는 여러 개를 레이어드 하지 않고 한 개만 착용해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 있어. 스포티한 형태로 활동하기 편하고 동시에 멋스럽게까지! 무엇보다 커플 코디를 하기에 딱인 아이템이야.

남자친구들에게도 봄 느낌이 물씬 나는 **플라워 패턴 스타일링** 법을 제안할게!

플라워 패턴은 여자친구들이 즐겨 입는 아이템이라는 오해와 편견이 있어.
예쁘고 화려한 패턴을 여자들만 즐기자니 그건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
시원한 컬러의 프린트나 단색의 패턴으로 디자인된 아이템을 고르는 거야. 패턴이 부담스럽지 않게
부분적으로 프린팅이 되어있거나 **작은 액세서리**에 들어간 아이템을 활용해서
스타일링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해봐.



Style 1. 반다나 손수건

반다나 손수건 하나면 더 이상 액세서리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
손목에 **밴드처럼** 묶어주면 팔찌처럼 연출할 수 있고 베이직한 **백에 묶어주면** 전혀 다른 느낌의 백으로 스타일링 할 수 있어.
그리고 베이직한 **셔츠와 함께 목에 묶어주면** 시크한 도시 남자로 변신!

Style 2. 파린 백

백을 고를 때는 베이직한 컬러로 고르되 **디자인이 강조된 백**을 골라봐.
그러면 아이템이 많지 않아도 여러 개의 아이템처럼 활용 가능해!
시원한 느낌의 마린 백은 활동성을 강조해서 발랄해 보이고 **멋스러운 스타일링**을 완성시켜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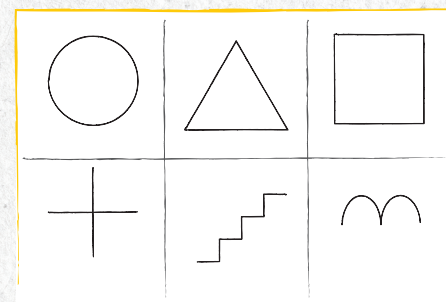
Style 3. 카드지갑

코디가 웬지 심심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땐 **카드지갑을 포인트로** 매치하면 Good~
컬러와 디자인이 다양해서 어떤 스타일에도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이 가능해!
편리성과 디자인 모두를 갖춘 카드지갑은 여러 개 가지고 있어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해!

재미로 보는 그림 심리 테스트

출처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리는 심리테스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연필, 펜, 색연필 등의 도구만 준비하면 끝!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오른쪽의 도형 위에**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그려보세요!
다 그린 후에는 그것에 대한 느낌을 적고 아래 해석을 읽어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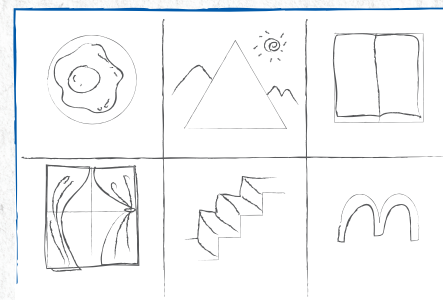


Step.1

순서에 관계없이
도형을 보고 연상되는 것을
자유롭게 그리면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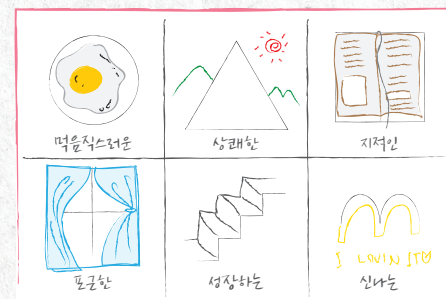
Step.2

도형 주변의 여백을
충분히 이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Step.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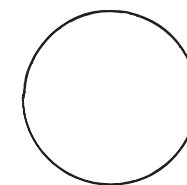
쑥쑥쑥 자유롭게
그린 후 그림을 그릴 때
생각했던 느낌을 아래
적으면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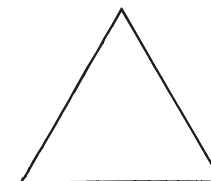
재미로 보는 해석

- | | |
|-------------------------|------------------------|
| ○ A. 동그라미 - 내가 보는 나의 모습 | ✚ D. 십자가 - 나의 잠재의식 |
| □ B. 네모 - 타인이 보는 나의 모습 | ㄴ E. 계단모양 - 나의 가족관 |
| △ C. 세모 - 나의 인생관 | ㄹ F. 아치모양 - 내가 생각하는 사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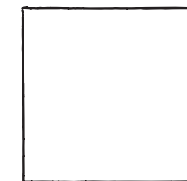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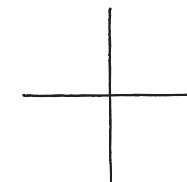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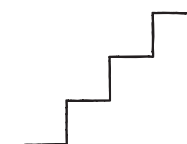
C



D



E



F



다리가 길어 보이는 학생들
오! 오! 오! 오! 오! 오!



IVYclub 아이비클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75-3 트윈타워빌딩 A동 2F 080-527-7655 | 080-461-8881 | www.ivyclub.com

제작 아이코나츠 www.iconarts.co.kr